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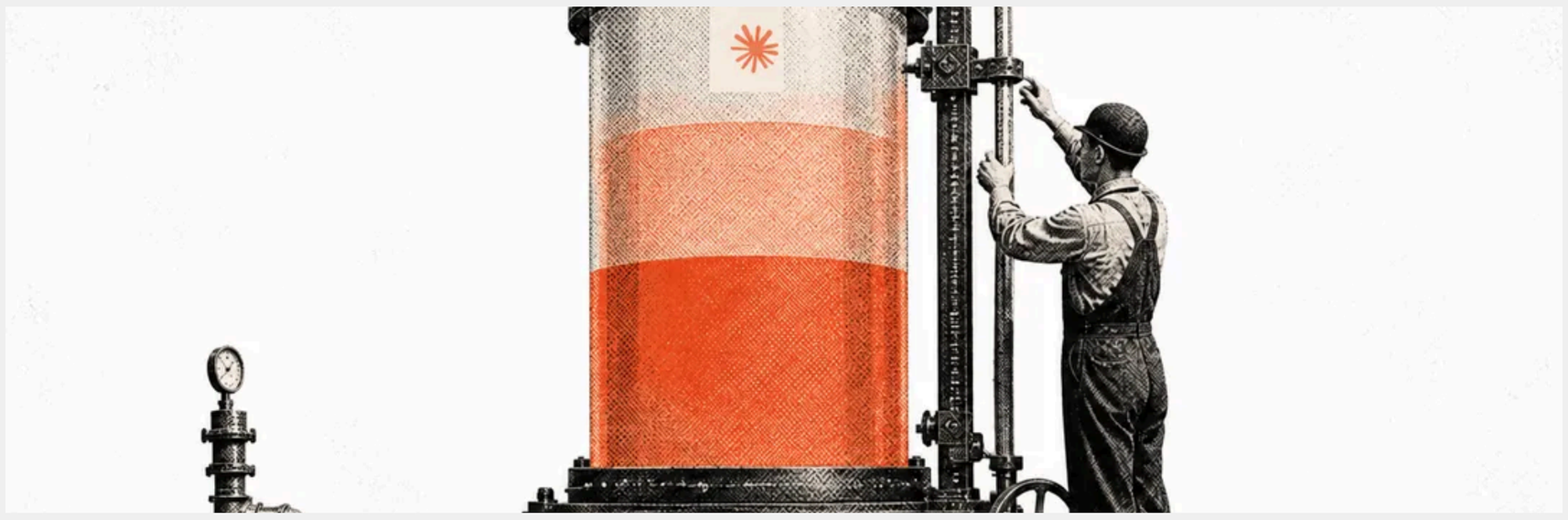
LAB
METAL
어려운 AI, 쉽고 재미있게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14 호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 오늘의 AI

클로드 코드 주간 한도, 9월14일 '영구 25% 인상'은 실질 감소

앤스로픽이 임시 50% 상향을 걷어내고 25% 영구 인상으로 바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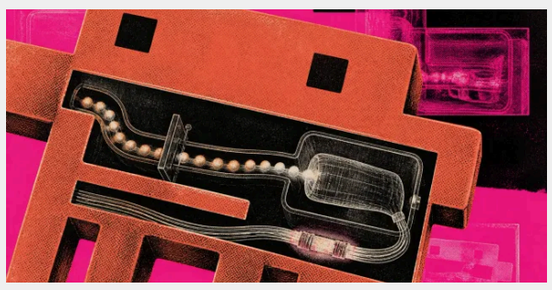


· 클로드 코드 주간 한도, 9월14일 '영구 25% 인상'은 실질 감소

앤스로픽의 개발자 도구 계정 클로드데브스(ClaudeDevs)는 8월 29일,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주간 사용 한도를 9월 14일부터 기존 기준보다 25% 영구적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적용 대상은 Pro, Max, Team, 좌석형(seat-based) Enterprise 요금제고요. 9월 14일 전까지는 지금 적용 중인 50% 임시 상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어요.

Techmeme는 이 발표를 두고 9월 14일부터 대부분 요금제에서 주간 한도가 영구적으로 25% 오르지만, 현재의 50% 상향에 비하면 17% 줄어드는 셈이라고 정리했어요. 숫자로 보면 임시 조치가 걷히면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한도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구조예요.

이번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클로드 코드는 지난 8월 18일에도 주간 한도를 50% 올린 임시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 적이 있어요. 당시 앤스로픽은 모델 수요가 워낙 강해서 앞으로 몇 주간 용량이 빠듯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임시 상향을 영구 정책으로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었죠. 이번 발표는 그 검토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막상 영구화된 폭이 임시 조치보다 작게 잡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클로드 코드, 시작 속도·토큰 표시·원격제어 손봤다

The Decoder는 8월 30일 후속 보도에서 앤스로픽이 한도 숫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클로드에서 더 많은 걸 얻는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사용량 통제권과 투명

셈이에요. 앤스로픽은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고, 아마존과 구글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제공사일 뿐 클로드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이번 한도 정책도 앤스로픽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지한 사안이에요.

최근 추가된 자동 피드백 도구도 이런 개선 흐름의 하나예요. 앤스로픽 공식 문서에 따르면 클로드 코드 2.1.238 이상에서는 도구나 명령이 계속 실패하거나 사용자가 오류를 지적하면 클로드가 피드백 초안을 로컬에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에만 전송되고, 대화 기록 포함 여부를 고를 수 있으며 설정에서 이 기능을 끌 수도 있어요. 이 기능 자체가 주간 한도를 늘리지는 않지만, 앤스로픽이 사용량 표시와 제품 개선 과정을 함께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강 사례예요.

지금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는 사용자라면 9월 14일을 기점으로 체감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팀 단위로 코드 작업량이 많은 조직은 이 시점을 전후해 사용 패턴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금제 구조는 국내에서 클로드 코드를 쓰는 개발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 사용량이 많은 프로젝트라면 9월 14일 전후로 작업 스케줄을 조정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로봇

제미나이 로보틱스2 탑재 로봇 Apollo, 부엌일이 더 어려웠다

구글 딥마인드가 8월7일 유튜브에 올린 인터뷰 영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Apollo가 자사 로봇 모델 Gemini Robotics 2로 수행한 세 가지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건 몸 전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스포츠 동작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묶는 손끝 작업이었다고 답했어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면 Apollo가 직접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Apollo는 부엌일 과제를 두고 쓰레기봉투를 묶는 게 꽤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전신 균형이 필요한 스포츠 챌린지도 로봇에게 놀랍도록 어려운 과제였다고 인정했지만, 부엌일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구분해서 말했죠. 손끝으로 매듭을 짓는 정교한 조작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운동 능력보다 로봇에게 더 큰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차고 챌린지에서 Apollo는 'Duo'라는 이름의 로봇과 함께 작업했다고 밝혔어요. 정리함을 닫고 다시 원래 통에 넣는 협업 작업이었는데, 이 과정이 특히 잘 됐다고 스스로 평가했고요. 로봇 한 대가 개별 동작을 정확히 해내는 것과, 여러 대가 같은 공간에서 순서를 맞춰 움직이는 협업은 서로 다른 난이도의 문제예요. 영상 인터뷰에서 Apollo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상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을 맺었어요.

구글 딥마인드가 신제품 발표문 대신 로봇을 '인터뷰이'로 세운 건 로봇 모델의 능력을 스펙표가 아니라 대화체로 전달하려는 선택으로 보여요. 파라미터 수나 벤치마크 점수를 나열하는 대신 로봇이 스스로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말하게 하면, 일반 독자도 VLA 모델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분야 모델을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로봇 시연 영상이 늘 강조하는 건 화려한 동작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로봇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한 구성이 눈에 띄어요. 이런 정직한 실패 공개는 과장된 데모보다 신뢰를 더 얻는 방식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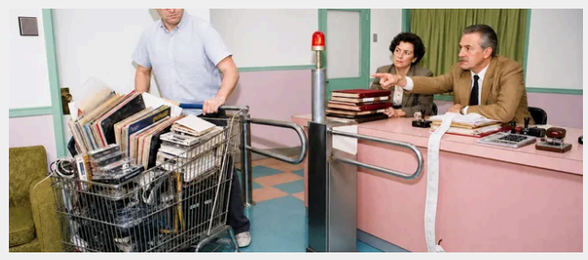
실무적으로 보면 이 영상이 확인해 준 건 하나예요 — 손끝으로 매듭을 짓거나 끈을 묶는 미세 조작은, 몸 전체를 쓰는 동작보다 여전히 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에요. 물류·서비스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팀이라면, 전신 이동이나 물건 나르기보다 매듭짓기·포장 마무리 같은 정밀 작업에서 실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파일

오늘 지면

1 클로드 코드 주간 한도, 9월14일 '영구 25% 인상'은 실질 감소
2 비즈니스 머스크 "2027년 AI 컴퓨트 15GW, 전력 있어도 못 켠다"
3 구글 딥마인드, 연구용 AI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 공개
4 비즈니스 소니뮤직·워너채플, 앤스로픽 창업자까지 저작권 피소
5 로봇 제미나이 로보틱스2 탑재 로봇 Apollo, 부엌일이 더 어려웠다
6 클로드 코드, 시작 속도·토큰 표시·원격제어 손봤다

이 지면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니뮤직·워너채플, 앤스로픽 창업자까지 저작권 피소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스로픽, 그리고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와 벤저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어요. Music Business Worldwide가 처음 보도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지난 금요일 밤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장은 앤스로픽의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앤스로픽은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

▶ 2면에 계속

비즈니스

머스크 "2027년 AI 컴퓨트 15GW, 전력 있어도 못 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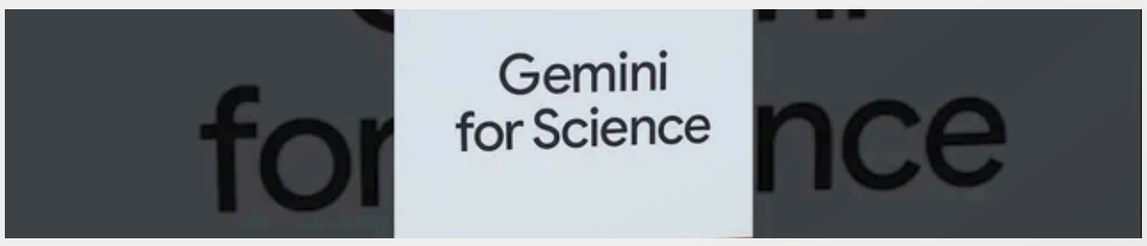


일론 머스크가 8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X 계정에 2027년까지 생산되는 AI 컴퓨트 가운데 약 15기가와트(GW) 분량이 같은 해 안에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컨센서스 추정치를 올렸어요.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전력을 확보하는 일보다 어렵다고 짚었는데요, 변압기와 배선, 액체냉각 시스템, 대형 칠러, 복잡한 네트워킹까지 모두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추정치의 출처로는 자신이 공유한 Grok 대화 링크를 함께 걸었어요.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최근 METAL LAB이 확인한 데이터센터 계약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드러나요. 엔비디아와 SB에너지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조성 중인 '포츠파이크' 부지는 초기 배치 용량이 4.25기가와트로, 오픈AI가 입

▶ 2면에 계속

구글 딥마인드, 연구용 AI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 공개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든 이 도구는 새로 발표된 논문을 놓치지 않고 따라잡거나, 연구 목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코드로 바꾸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돕는 '랩스 프로토타입' 형태로 제공돼요. 발표 영상에서는 "our new labs prototypes streamline daily scientific tasks(새 랩스 프로토타입이 일상적인 과학 작업을 매끄럽게 만든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제미나이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들고 구글이 앱과 API로 유통하는 AI 모델 브랜드예요. 챗봇으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 맞춘 버전으로 갈라지는 흐름이 뚜렷해요. 구글이 강화학습 기법 ResidencyRL로 임상 상담 능력을 훈련시킨 사례에서 보듯,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의료 상담용으로 따로 다듬은 전례가 있어요. 이번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요 — 범용 모델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게 두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머스크 "2027년 AI 컴퓨트 15GW, 전력 있어도 못 켠다"



1 일론 머스크가 2027년 생산될 AI 컴퓨트 약 15기가와트가 같은 해 안에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컨센서스 추정치를 X에 공유했어요.

2 전력 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압기·배선·액체냉각·대형 칠러·복잡한 네트워킹까지 새로 지어야 한다고 짚었어요.

3 엔비디아·오픈AI가 오하이오 등지에서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에요.

그동안 AI 인프라 논쟁은 주로 GPU 공급과 발전 용량 확보에 쏠려 있었는데, 머스크의 지적은 그다음 병목으로 넘어가요. 변압기는 주문해도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리는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 대형 칠러와 액체냉각 배관, 초고밀도 네트워킹 장비도 공급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예요. GPU를 사들이고 전력 계약까지 맺은 기업이라도 이런 물리적 공사가 늦어지면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고도 서버를 곧바로 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결국 2027년 AI 컴퓨트 시장을 가늠하려면 GPU 출하량이나 전력 계약 규모뿐 아니라, 변압기·배선·냉각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 1면에서 계속

구글 딥마인드, 연구용 AI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 공개



1 구글 딥마인드가 제미나이 기반 과학 연구 지원 도구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를 공개했어요

2 신규 논문 추적, 연구 목표의 코드 변환, 가설 생성을 돕는 랩스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돼요

3 구체적 성능 수치나 이용 범위는 공개된 자료에 담기지 않았어요

지금 확인된 범위에서는 연구자가 논문 추적과 코드 작성, 가설 도출을 하나의 도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구글이 대학(원)생 대상 제미나이 유료 멤버십 무료 제공이나 AI 에이전트 '제미나이 스파크' 출시 같은 시도를 이어온 만큼, 이번 과학 연구용 도구도 학계·연구기관을 겨냥한 확장 라인업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국내 적용 시점이나 이용 조건은 아직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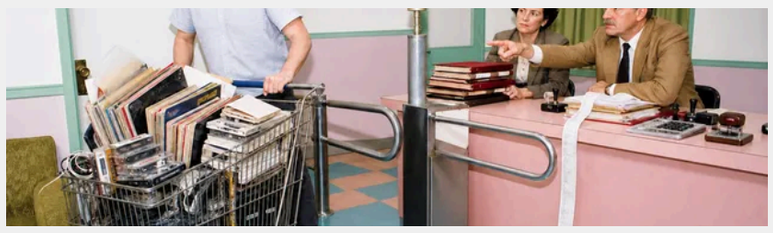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제미나이가 과학을 한다"보다 연구 과정의 세 단계를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묶으려는 시도예요. 논문을 찾고, 연구 목표를 코드로 옮기고, 다음 가설을 세우는 일은 서로 이어져 있지만 지금까지는 도구가 나뉘어 있었어요. 이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면 연구자는 검색과 형식 변환에 쓰던 시간을 실험 설계와 검증에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 영상은 제품의 방향만 보여줬을 뿐, 성능 수치·지원 언어·사용 대상·검증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특히 생성된 코드와 가설은 그럴듯함이 아니라 재현성과 반증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해요. 연구 현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AI가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근거와 계산 과정을 연구자가 얼마나 쉽게 추적하고 다시 검증할 수 있느냐예요.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소니뮤직·워너채플, 앤스로픽 창업자까지 저작권 피소



1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스로픽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벤저민 만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어요

2 소장은 벤저민 만이 비트토렌트로 책 5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해요

3 저작물당 최대 15만달러씩 청구해 최대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어요

소장은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했어요. 벤저민 만이 비트토렌트를 이용해 해적판 책 5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해적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 앤스로픽이 뮤직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처럼 음반사에 정식으로 사용료를 낸 사이트에서 가사를 무단으로 긁어갔다는 혐의도 담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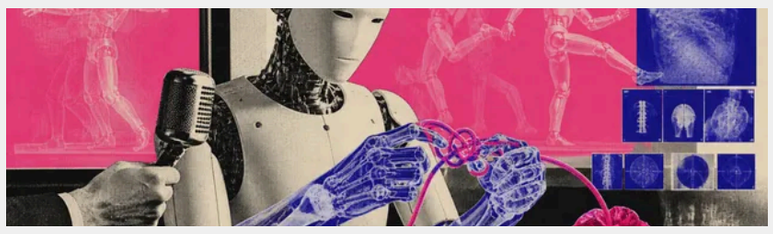
풀어서 설명하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플이 책 500만 권의 권리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앤스로픽이 불법 자료 창고를 토렌트로 통째로 가져갔고, 그 안에 두 회사가 권리를 가진 가사와 악보도 들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소장에 거명된 곡은 마빈 게이와 태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의 "Livin' On a Prayer",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레너드 코헨의 "Hallelujah",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등이에요. 원고 측은 이런 곡을 포함해 수만 건의 저작물이 클로드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고 주장해요.

로봇

제미나이 로보틱스2 탑재 로봇 Apollo, 부엌일이 더 어려웠다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로봇 Apollo가 스포츠 균형보다 쓰레기봉투 묶기를 더 어려웠다고 밝혔어요



1 구글 딥마인드가 8월7일 유튜브에 휴머노이드 로봇 Apollo와의 인터뷰 형식 영상을 올렸어요

2 Apollo는 부엌일·스포츠·차고 정리 세 과제 중 쓰레기봉투 묶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어요

3 차고 정리에서는 다른 로봇 'Duo'와 협업해 정리함을 닫고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수행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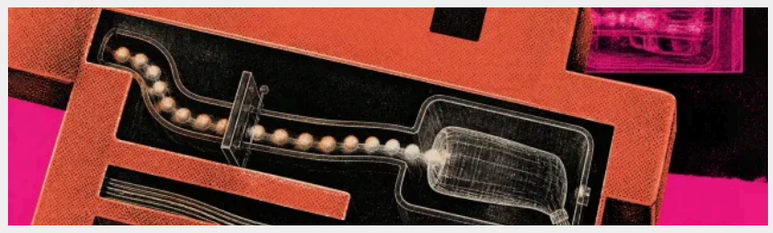
구글 딥마인드가 8월7일 유튜브에 올린 인터뷰 영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Apollo가 자사 로봇 모델 Gemini Robotics 2로 수행한 세 가지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건 몸 전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스포츠 동작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묶는 손끝 작업이었다고 답했어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면 Apollo가 직접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Gemini Robotics 2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로봇용 모델로, 텍스트·이미지·행동(action)을 함께 처리하는 비전-언어-행동(VLA) 계열 모델이에요. VLA는 로봇이 카메라로 본 장면과 사람의 말을 함께 이해해서 실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말해요. 제미나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챗봇 앱과 달리, 몸을 가진 로봇을 위한 모델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Apollo는 부엌일 과제를 두고 쓰레기봉투를 묶는 게 꽤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전신 균형이 필요한 스포츠 챌린지도 로봇에게 놀랍도록 어려운 과제였다고 인정했지만, 부엌일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구분해서 말했죠. 손끝으로 매듭을 짓는 정교한 조작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운동 능력보다 로봇에게 더 큰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클로드 코드, 시작 속도·토큰 표시·원격제어 손봤다

앤스로픽이 이번 주 클로드 코드에 CLI 구동 속도 개선과 토큰 사용 내역 표시, 자동 모드 규칙 편집 기능을 추가했어요



1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이번 주 CLI 시작 속도를 높이고 토큰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업데이트를 내놨어요

2 자동 모드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됐고, 원격 제어 기능의 버그도 추가로 수정됐어요

3 공식 계정은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고, 세부 수치나 적용 시점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앤스로픽의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개발 계정 ClaudeDevs가 8월 28일, 이번 주 반영한 개선 사항 네 가지를 공개했어요. CLI(명령어만 입력해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 구동 속도를 높였고, 작업 중 토큰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도록 했어요. 자동 모드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편집하기 쉽게 바꿨고, 원격에서 작업을 제어하는 Remote Control 기능의 버그도 추가로 고쳤다고 밝혔어요. 계정은 이 모든 변경이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라고 짧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속도 개선 폭이나 적용 대상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글자만 입력해 코드를 짜고 고치는 앤스로픽의 코딩 에이전트예요. 최근 몇 주 사이에도 변화가 잦았죠. 이런 흐름을 보면 클로드 코드 팀은 큰 기능 하나를 던지기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불편 — 느린 반응, 불투명한 비용, 헷갈리는 자동화 규칙 — 을 매주 잘게 쪼개 고쳐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코딩 에이전트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는 시간에도 파일을 고치고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 자체가 신뢰의 핵심이에요. 토큰 사용처를 더 보여주고 자동 모드 규칙을 편집 가능하게 만든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를 매일 켜 두고 장시간 작업을 맡기는 개발자라면, 시작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세션을 여닫는 부담이 줄고, 토큰 소모 내역을 더 촘촘히 볼 수 있어 비용 관리가 수월해져요. 자동 모드로 권한을 넘겨둔 팀은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고칠 수 있게 됐고요. 원격으로 작업을 걸어두는 Remote Control 사용자는 이번 수정으로 안정성이 조금 더 나아졌을 걸로 보여요.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성능 수치나 적용 버전이 없어서, 체감 변화의 폭은 실제로 써 보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리모트 컨트롤
Remote Control
클로드 코드에서 다른 곳에 걸어둔 작업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조작하는 기능.

일레븐크리에이티브
ElevenCreative
일레븐랩스가 만든 영상·이미지 제작 도구로, 영상 생성과 보이스오버·음악 같은 오디오 작업을 한 곳에서 처리한다.

뮤직매치
Musixmatch
음반사·출판사에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노래 가사를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업체.

리릭파인드
LyricFind
음반사·작사가에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가사 데이터를 라이선스해 음악 서비스에 공급하는 업체.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2가지

1 콘텐츠 신뢰 자격증명

Content Credentials

사진·영상이 카메라로 찍혔는지 AI로 만들어졌는지, 이후 어떤 편집을 거쳤는지 보여주는 콘텐츠의 이력 표시.

이게 뭔데

콘텐츠 신뢰 자격증명은 사진이나 영상에 붙는 이력서 같은 것이에요. 여권에 입국·출국 스탬프가 하나씩 찍히듯, 이 사진이 카메라로 찍혔는지 AI로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정됐는지를 순서대로 기록해 둬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후 사진 편집 앱으로 밝기를 조절했다면, 콘텐츠 신뢰 자격증명은 촬영 장비와 편집 이력을 모두 함께 보여줘요. 단순히 AI냐 아니냐를 가르는 이분법이 아니라, 콘텐츠가 태어나서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거친 단계를 하나씩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이 표시는 파일 안에 심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눈으로 알아채지 못해도 브라우저나 앱이 대신 읽어서 알려줄 수 있어요.

해 보려면

1. 확인하고 싶은 이미지 위에서 화면을 원으로 그려 검색하는 기능을 쓰거나, 컴퓨터 브라우저라면 이미지를 마우스로 우클릭해요.
2. 뜨는 메뉴에서 "이 이미지가 AI로 생성됐나요?"라고 물어봐요.
3. 브라우저가 이미지 안에 숨겨진 신호와 콘텐츠 신뢰 자격증명 정보를 함께 읽어, 카메라로 찍힌 것인지 AI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후 편집됐는지까지 답해줘요.

오늘 지면에서 — 오픈AI·카카오, 구글 워터마크 신스ID 함께 쓴다

2 C2PA 메타데이터

C2PA metadata

사진이나 영상 파일에 담겨,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도구로 수정됐는지 이력을 기록하는 표준 정보.

이게 뭔데

C2PA 메타데이터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에 붙는 이력서 같은 정보다. 이 사진이 카메라로 찍혔는지, AI로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어떤 도구로 편집됐는지를 파일 안에 기록해 둔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나중에 사진 보정 앱으로 손봤다면, 그 과정이 그대로 정보로 남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파일에 심는 워터마크와는 조금 다르다. 워터마크는 신호를 숨겨 넣는 표시라면, C2PA 메타데이터는 그 콘텐츠가 거쳐 온 단계를 적어 두는 기록 카드에 가깝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워터마크는 끌 수 있게 바뀌어도, C2PA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남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 정보를 실제로 확인하려면 사람이 직접 볼 수 없으니 브라우저나 앱이 대신 읽어서 알려준다. 예를 들어 크롬에서 이미지를 우클릭해 AI로 만들어졌는지 물어보면, 크롬이 이 메타데이터를 읽어 촬영 장비나 편집 이력까지 함께 보여준다.

해 보려면

1. 카메라로 찍었는지 AI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미지를 준비해요.
2.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이미지를 마우스로 우클릭해요.
3. 뜨는 메뉴에서 "이 이미지가 AI로 생성됐나요?"라고 물어봐요.
4. 크롬이 파일에 담긴 C2PA 메타데이터와 워터마크 신호를 함께 읽어, 촬영 장비나 편집 이력까지 답으로 보여줘요.

오늘 지면에서 — 오픈AI·카카오, 구글 워터마크 신스ID 함께 쓴다

오늘 나온 말, 조금 더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리모트 컨트롤

Remote Control

리모트 컨트롤은 내 눈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작업을 멀리서 조종하는 기능이에요. 집 안 TV를 리모컨으로 켜고 끄듯,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가 어딘가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게 해줘요.

코딩 에이전트는 사람이 옆에 앉아 매 순간 지켜보지 않아도 파일을 고치고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 진행 중이라면, 도중에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손을 댈지가 문제가 되죠. 리모트 컨트롤은 그럴 때 쓰는 창구예요.

다만 이 기능은 아직 세부 사용법이나 지원 환경이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고, 최근에는 버그를 고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일레븐크리에이티브

ElevenCreative

일레븐크리에이티브는 일레븐랩스가 만든 영상·이미지 제작 도구다. 최근에는 바이트댄스 시드가 만든 영상 생성 모델 시드앤스 2.5를 가져와 붙였는데, 인물 사진이나 제품 사진 같은 참조 자료를 최대 50장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얼굴이나 제품 모양, 조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컷 없이 이어지는 30초짜리 영상을 한 번에 만들어준다.

이걸 릴레이 달리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짧은 영상 여러 개를 이어 붙여 긴 영상을 만들면, 바통을 넘길 때마다 주자가 살짝 달라지듯 장면이 바뀔 때마다 주인공 얼굴이나 제품 형태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다. 일레븐크리에이티브는 이런 이어붙이기 대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뛰듯 한 번의 생성으로 30초 전체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영상을 만들고 나면 같은 화면 안에서 목소리를 입히고 입 모양을 맞추고, 배경음악과 효과음까지 붙일 수 있다. 촬영과 후반 작업을 따로 오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실제 화질이나 참조 반영이 얼마나 정교한지는 공개된 소개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뮤직매치

Musixmatch

뮤직매치는 노래 가사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음악 앱이나 노래방 앱에서 노래를 틀면 화면에 가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가 뮤직매치예요. 이런 서비스는 아무 데서나 가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음반사나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낸 다음에 가사를 화면에 띄워요.

기사에서는 이 서비스가 문제의 중심에 놓였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방대한 텍스트가 필요한데, 누군가 이 정식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가사를 몰래 긁어갔다는 혐의가 나왔거든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파는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집어간 셈이라,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화가 나는 지점이에요. 원래 받아야 할 라이선스 수입을 놓친 데다, 그 데이터가 다시 AI 학습에 쓰였으니까요.

듀오 (Duo)

Duo

듀오는 로봇 이름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Apollo가 차고 정리 과제를 수행할 때 함께 손발을 맞춘 상대역 로봇이에요.

비유하자면 사람 두 명이 이삿짐을 나를 때 한 명이 물건을 들고 다른 한 명이 상자를 받아주는 것과 비슷해요. 정리함을 닫고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Apollo 혼자가 아니라 듀오와 함께 순서를 맞춰 해냈다는 거예요. 로봇 한 대가 혼자 정확히 움직이는 것과, 두 대가 같은 공간에서 타이밍을 맞춰 협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난이도의 문제인데, 이 협업이 특히 잘 됐다고 Apollo 스스로 평가했어요.

기사에서는 듀오가 별도의 로봇 모델로 소개되기보다는, Apollo가 언급한 협업 상대의 이름으로만 등장해요. 듀오 자체를 만든 회사나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는 이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해적 라이브러리 미러

Pirate Library Mirror

해적 라이브러리 미러는 정식 출판사나 저자의 허락 없이 책 파일을 긁어모아 누구나 내려받게 해주는 사이트다. 동네 도서관이 출판사에 대여료를 내고 책을 갖춰두는 곳이라면, 이곳은 그 책들을 몰래 복사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아무나 가져가게 하는 곳에 가깝다.

AI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이트는 대량의 텍스트를 빠르고 값싸게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 텍스트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것이라는 점이다. AI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자료를 재료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정에 올라간다.

아폴로

Apollo

아폴로는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의 이름이에요. 팔다리와 손이 달려 있어서 실제로 물건을 집고, 옮기고, 묶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로봇이 움직이는 방식을 정해주는 두뇌 역할은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로봇용 모델이 맡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아폴로는 사람의 몸, 그 두뇌 모델은 운전면허를 딴 사람의 판단력 같은 거예요. 카메라로 본 장면과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손과 팔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주는 셈이죠. 아폴로는 이 두뇌를 빌려 부엌일, 스포츠 동작, 차고 정리 같은 서로 다른 과제에 도전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아폴로가 이 과제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몸 전체로 균형을 잡는 동작보다 손끝으로 쓰레기봉투 매듭을 묶는 일이 훨씬 까다로웠다고 밝혔는데, 이는 로봇에게 정교한 손 조작이 여전히 큰 숙제라는 걸 보여줘요.

랩스 프로토타입

Labs Prototype

랩스 프로토타입은 아직 정식 제품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막 꺼낸 시제품 같은 상태로 먼저 공개하는 도구를 뜻해요. 식당으로 치면 정식 메뉴판에 올리기 전에 손님 몇 명에게 시식시켜 반응을 보는 시제품 요리와 비슷해요. 맛(성능)이 어떻게 바뀔지, 언제 정식 메뉴가 될지, 아예 메뉴에서 빠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랩스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나 처리 속도, 정확한 작동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다듬기 전에 실제 사용자 반응을 먼저 보고 싶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새 기능을 만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인 방식이에요. 다만 언제든 기능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베타나 데모가 있는데, 랩스 프로토타입은 특히 연구·실험적 성격이 강한 도구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

Gemini for Science

제미나이 포 사이언스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연구 업무에 맞게 다듬은 도구예요. 새로 나온 논문을 놓치지 않고 따라잡거나, 연구 아이디어를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로 옮기거나, 데이터를 보다가 새로운 가설을 떠올리는 일을 돕도록 만들어졌어요.

비유하자면 연구실에 성실한 조수가 새로 들어온 셈이에요. 이 조수는 매일 아침 새로 올라온 논문을 훑어 정리해주고, 연구자가 원하는 실험 방향을 말하면 그에 맞는 코드를 짜주고,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며 가설도 슬쩍 던져줘요. 다만 아직 정식 채용된 게 아니라 시험 삼아 데려온 인턴 같은 '랩스 프로토타입' 단계라서, 어떤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지 어떤 언어로 코드를 짜는지 같은 구체적인 근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게 두지 않고, 분야별로 따로 다듬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의료 상담에 맞춘 버전을 따로 훈련시킨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연구자를 위한 버전을 내놓은 셈이에요.

신스ID

SynthID

신스ID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워터마크 기술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 파일 속에 사람 눈이나 귀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신호를 심어 넣는다.

비유하자면 지폐 속에 숨겨 넣는 위조 방지 표식과 비슷하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사진이나 영상이지만, 그 안에는 기계만 읽을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이 흔적은 파일을 자르거나 압축해도 상당 부분 살아남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기에 넣어보면 이 콘텐츠가 사람이 찍은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

원래 구글은 이 기술을 제미나이나 나노 바나나 같은 자사 제품에만 붙여 왔지만, 오픈AI와 카카오 같은 외부 회사들도 같은 표준을 함께 쓰기 시작하면서 특정 회사의 기능이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공유하는 판별 도구로 넓어지고 있다.

오늘 기사, 마저 읽기

전문은 metallab.ai

클로드 코드, 시작 속도·토큰 표시·원격제어 손봤다

앤스로픽의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개발 계정 ClaudeDevs가 8월 28일, 이번 주 반영한 개선 사항 네 가지를 공개했어요. CLI(명령어만 입력해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 구동 속도를 높였고, 작업 중 토큰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도록 했어요. 자동 모드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편집하기 쉽게 바꿨고, 원격에서 작업을 제어하는 Remote Control 기능의 버그도 추가로 고쳤다고 밝혔어요. 계정은 이 모든 변경이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라고 짧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속도 개선 폭이나 적용 대상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글자만 입력해 코드를 짜고 고치는 앤스로픽의 코딩 에이전트예요. 최근 몇 주 사이에도 변화가 잦았죠. 이런 흐름을 보면 클로드 코드 팀은 큰 기능 하나를 던지기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불편 — 느린 반응, 불투명